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7월 일자리 18만 7천개 일자리 증가, 실업률은 3.5%로 하락
- WSJ: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식품 인플레이션은 더 악화 가능성

[미국 금융]

- Bloomberg: 디지털 달러는 은행과 정부에 유리하다
- CNN Business: 미 신용등급 하락 후 모기지율 7%에 근접
- CNN Business: 오일가 20% 상승에 에너지 주식 반등

[뉴욕시]

- CNN Business: 뉴욕시, 팬데믹 식당 도로 칸막이 구조물 ‘영구히’ 허용

[에너지]

- WSJ: 날씨와 월가 선물거래, 휘발유 가격 부추기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해운 대기업 Maersk “이익 급감, 세계 교역 둔화 경고”
- WSJ: 미국인들이 유럽으로 여행 가는 이유
- CNBC: 소비자 지출을 가을 줄어들 가능성 높다
- Bloomberg: 재택 근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한 팁
- WSJ: 아마존 성장세↑, 애플 성장세↓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Adds 187,000 Jobs, Unemployment Rate Drops to 3.5% 7월 일자리 18만7천개 일자리 증가, 실업률은 3.5%로 하락

- 오늘 금요일 발표된 연방 노동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6월과 비슷하게 7월에 18만7천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실업률은 예상과는 달리 3.5%로 하락, 수십 년 만에 낮은 수준인 셈이다.
- 이같은 여전히 강한 일자리와 소득 증가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경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소비자의 심리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며 소비와 성장에 좋은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시간당 평균 임금은 6월 대비해 0.4%, 그리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4.4% 늘어 모두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다. 물론 임금 증가세는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임금 상승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컸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금융 활동과 건설 분야 고용도 강세를 보였다.

Metric	Actual	Median Estimate
Change in payrolls (MoM)	+187k	+200k
Unemployment rate	3.5%	3.6%
Average hourly earnings (MoM)	+0.4%	+0.3%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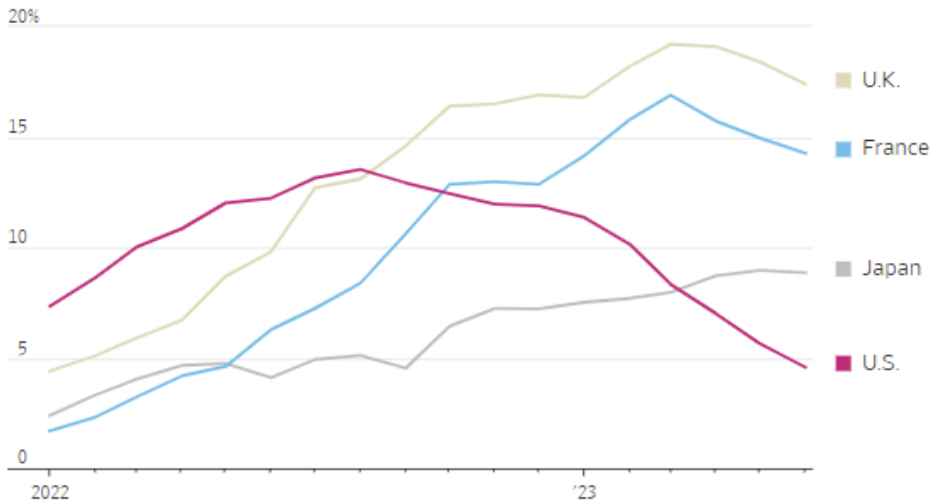
WSJ: Inflation Is Cooling. Food Inflation Could Get Worse.
인플레 둔화에도 불구하고, 식품 인플레는 더 악화 가능성

-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가 진정되었지만, 많은 국가에서 식품 인플레는 여전히 전반에 걸쳐 계속되고 있으며 인플레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수출 차질과 비정상적인 기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가 더 오를 수 있다.
- 미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아 6월 식품 가격이 전년 동월 비교해 4.6% 올라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의 두 배가 넘었지만, 2022년 8월 최고치인 13.5%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 반면 영국, 일본 등의 식료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 현재 세계 여러지역에서 가정용 에너지 가격은 1년전 수준 아래인 데 반해 식품 인플레가 오래 계속되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 노력에 부심하고 있다.

Food Fright

Food inflation has been slower to come down outside the U.S.

Food prices, change from a year earlier



Sour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SJ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A Digital Dollar Is for Banks and Governments, But Not You**
디지털 달러는 은행과 정부에 유리하다

- 몇년 전과는 달리 더 이상 디지털 달러를 거론하는 사람은 드물다.
- 실제로 이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과 은행 거래가 필요한데 일부 저소득층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하다. 사실 은행들도 소비자에게 전자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제공하면 예금이 유출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 그러나 디지털 달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겠으나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 기관 사이에 이동하는 자금에 대한 기술적인 도약은 가까워 질 수 있다. 이들은 모의 디지털 결제를 실험하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24시간 365일 거의 즉각적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것이다.
- 한편 글로벌 경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중국, 홍콩, 아랍 에미리트, 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따르면 여러 디지털화된 통화로 이제 및 외환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을 테스트 중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Mortgage rates climb toward 7% after America's credit rating was downgraded**미 신용등급 하락 후 모기지율 7%에 근접**

- 이번주 미 모기지율이 7% 가까이 오르고 있다. 미 신용등급 하락 때문이다.
- 8월 3일에 끝나는 주의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6.90%로 전주의 6.81%에서 올랐다. 1년 전에만 해도 30년 모기지율은 4.99%로 그 지난 12개월중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상승 이유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미 정보 신용등급이 강등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주택 가격 상승은 금리 상승과 구매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고가 매우 낮는데 따른 것.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Oil prices are up 20% and energy stocks are rebounding
오일가 20% 상승에 에너지 주식 반등

- 올해초에 힘을 못쓰던 에너지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 S&P500 지수의 에너지 섹터는 3분기까지 6% 이상 상승해 벤치마크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 당초 에너지 주식은 글로벌 공급부족으로 작년과 같은 호황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기대했으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었다.
- 그런데 최근 수개월 동안 에너지 주식은 마침내 상승세를 탔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7월에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줄였으며, 9월까지 감산 기간을 연장했다. 수년 만에 가장 큰 감산 조치라 할 수 있다.

S&P 500 index energy sector's performance

The S&P 500 index's energy sector has gained more than 6% so far this quarter, after tumbling earlier this year.



Source: Refinitiv
Graphic: Krystal Hur, CNN

CNN Business 기사

[뉴욕시]

CNN Business: NYC passes bill to make pandemic-era outdoor dining program permanent, with more specific guidelines

뉴욕시, 팬데믹 식당 도로 칸막이 구조물 '영구히'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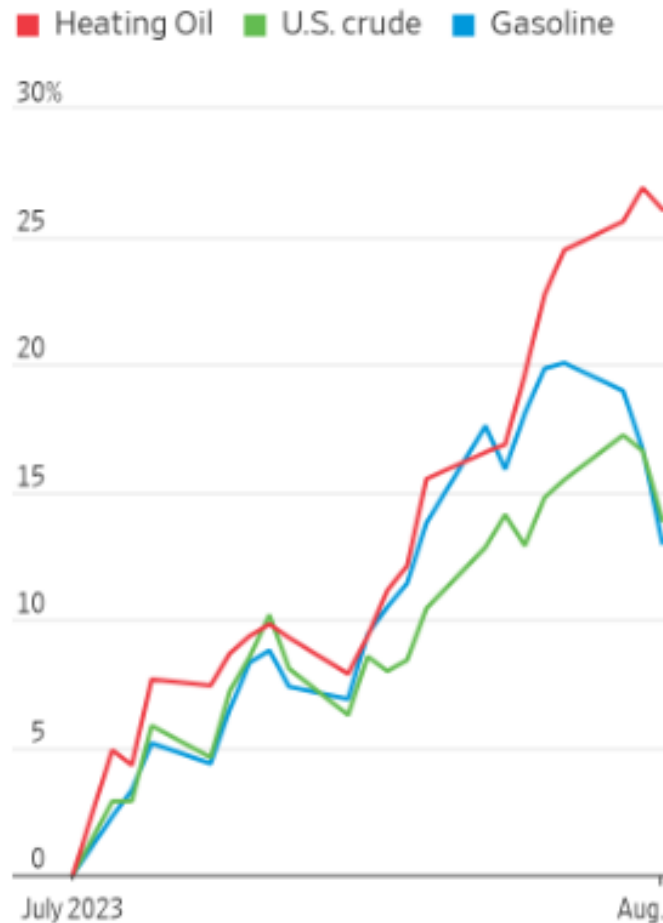
- 뉴욕 시의회가 이번주 목요일, 팬데믹 시대의 야외 식당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몇 가지 제한이 있는 전제 하에 승인한 것.
- 뉴욕시 당국은 2020년에 실내 식사와 수용 인원을 제한 했다. 이에 레스토랑은 식당 바로 바깥 외부 도로에 구조물을 짓거나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 했다.
-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외부 도로에 지은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식당 바로 인근 인도에 일부 테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일년 내내 허용할 예정이다.
- 이 법안은 45명 중 34명이 찬성했다. 레스토랑은 모든 야외 식사 구조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와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CNN Business 기사

[에너지]

WSJ: Weather and Wall Street Conspire to Push Up Gas Prices**날씨와 월가 선물거래, 휘발유 가격 부추기다**

- 보통 여름철에는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다.
- 7월 3일 이후 휘발유 도매 가격은 12% 이상 급등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휴가철이 끝나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에는 날씨와 월가의 영향이 있다. 분석가들은 미국 전역의 무더위로 인해 연료 제조가 더욱 어려워졌고, 원유를 다른 제품으로 정제하는 데 필요한 냉각 공정이 느려졌다고 말한다.
- 한편 에너지 트레이너들은 선물 계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가오는 허리케인 시즌이 정유소 운영을 중단 시키고 공급 부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AAA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전국 휘발유 가격은 평균 갤런당 29센트 올랐다.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최근 며칠동안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Change in benchmark futures prices

Note: Heating oil and diesel are interchangeable

Source: FactSet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BC: Shipping giant Maersk warns of sharp slowdown in global trade as it reports profit plunge****해운 대기업 Maersk “이익 급감, 세계 교역 둔화 경고”**

- 덴마크의 해운 대기업 Maersk가 오늘 컨테이너 운임 급락으로 2분기 실적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이다.
- 또한 글로벌 해운 컨테이너 수요의 급격한 하락을 경고했다. 유럽과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으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면서 물동량이 최대 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 이번 분기 매출은 129억 9천만 불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작년 2분기 매출은 216억 5천만 불.
- 이는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 하락하고,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계속되는 재고 부족으로 물동량이 줄기 때문이다.

CNBC 기사

WSJ: American Travelers Are Shunning the U.S. for Europe**미국인들이 유럽으로 여행 가는 이유**

- 미국인들은 올 여름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 중심의 항공편을 더 많이 구매했다.
- 그 중에서도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다. 미국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의 매력으로 미국내 여행지보다는 가까운 유럽으로 가는 것.
- 항공권 가격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었다. 국내선 요금은 작년보다 11% 하락해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는 반면, 국제선 요금은 작년보다 11% 상승해, 2019년 대비 28% 상승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노선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미국 중심 항공사에 유리하지 않다”고 Spirit Airlines 최고 경영자 Ted Christie이 말했다.

WSJ 기사

CNBC: ‘Something bad is happening around the corner’: Why a consumer spending drop is likely in the fall**소비자 지출 올 가을 줄어듦 가능성 높다**

-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퍼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Dana Peterson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게 만

드는 세 가지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 첫 번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는 “금리 인상의 후행적 효과가 소비자 지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두 번째는 저축 감소현상이다. 이는 올 가을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1조 5천억 불 부양책이 끝나면 경미하거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Chase CEO Jamie Dimon이 말했다.
- 세 번째는 학자금 대출 상황이 재개되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미국 교육부에 따르면 3년동안 중단되었던 학자금 대출 상황이 올해 10월에 재개될 예정이다.
-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이 총 1조 8천억 불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월 청구 금액은 350불이다.

CNBC 기사

Bloomberg: Work Shift: Tips for Parents Who Need Remote Work 재택 근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한 팁

- 회사의 유연한 근무 정책을 제대로 파악해서 자신의 요청이 회사의 기준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주 3일간 원격 근무를 원하면 그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정책인지 확인하라.
- 원격 풀타임 근무를 원한다는 그러한 요청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는게 좋다. 다른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만들지 말라.
- 프로젝트나 회의가 필요할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라.
- 중소기업이 원격 근무를 고려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유연성 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

Best US Cities for High-Paying Entry-Level Jobs

Entry-level roles pay the most in these cities

City	Entry Level Job Ads Above Median Wage
Bozeman, MT	87.8%
Iowa City, IA	87.7
Jackson, MS	84.8
Kansas City, KS	83.1
Fort Smith, AR	79.7
Lexington, KY	78.2
Hartford, CT	78.0
New Haven, CT	78.0
Oakland, CA	77.7
San Francisco, CA	77.6
Boise, ID	77.5
Des Moines, IA	75.6
Bowling Green, KY	75.4
Sioux Falls, SD	75.1
Fayetteville, AR	74.9
Provo, UT	74.6
Cedar Rapids, IA	74.3
Idaho Falls, ID	74.2
Memphis, TN	73.7
Reno, NV	73.5

Source: Resume.io

Note: Resume.io measured how many entry-level job ads were being advertised with a starting salary above the median salary for all 50 U.S. states and 223 major U.S. cities; their research included 223 U.S. cities with a threshold set of 925 entry-level jobs or more per location. The data for the analysis was collected in April 2023 and is correct as of June 2023.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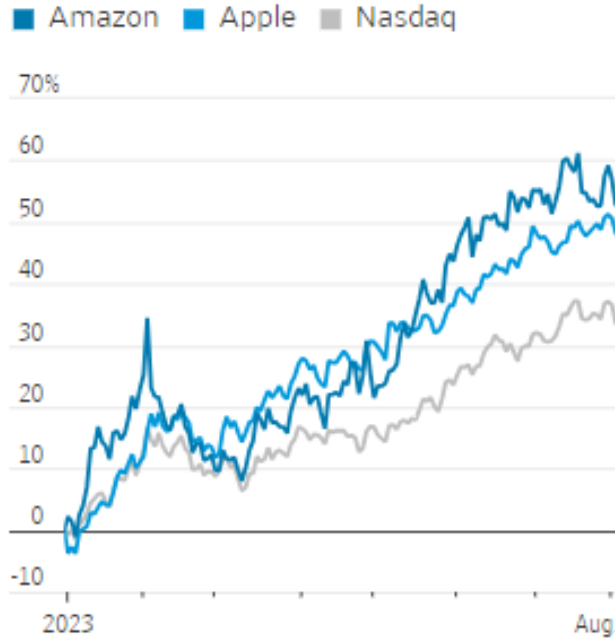
WSJ: Amazon Shines During Apple's Off-Season

아마존 성장세↑, 애플 성장세↓

- 아마존은 전년 대비 11%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 했다.
- 더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이 77억 불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를 58% 상회했다는 것.
- 반면 애플 매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818억 불이다. 서비스 부문 성장을 회복 덕분에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아이폰 판매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 또한 9월 전체 매출도 비슷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P에 따르면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 매출이 4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 애플의 단기 전망은 다음 달 말에 출시될 새로운 아이폰 모델에 달려 있다. 한편 아마존은 더 성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문 처리 네트워크 초기 과잉을 해결하고, AWS 비즈니스 성장이 안정화 된 것.

Tech Run

Share price and index performance



Source: FactSet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 장기 채권금리 치솟아...9개월 사이 최고 수준

인플레 완화·미 신용등급 강등 속 상승세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3일(현지시간) 최근 9개월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용과 다른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향하고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나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이날 10.3bp(1bp=0.01%포인트) 오른 4.181%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다. 한때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인 4.195%를 기록하기도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8/4/23, 1:06 PM

Constant Contact

Sent by office@kocham.org